

신행동는 불교용품

부처님오신날 특집



새싹들의 신행용품과 잇대기용품 학습용품은 놀이도 하며 교리도 배우고 불심도 키워주는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해준다.

놀이하며 교리도 불심도 키워요

팬시용품

동심불심(童心佛心). 즉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은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같다는 뜻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신행을 돕고 정서순화를 하는데 열주목걸이·합장주·목탁열쇠고리 등 불구류를 이용한 팬시용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예쁘게 치장해주고 학습의욕을 북돋워주는 어린이불자의 전용물인 멋내기 팬시용품이 다양하다. 이들 팬시용품들은 비교적 싼 가격으로 판매돼 널리 애용되고 있다. 형형색색의 예쁜 모자와 연꽃과 동자승으로 수놓아진 T셔츠에 꼬마 합장주를 손목에 차고 108염주, 만자 목걸이를 걸치면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맘껏 연출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

염주·합장주·티셔츠·공책등 풍성 예쁘게 멋내고 학습의욕 북돋워

를 주는 뱃지를 달고 연꽃오색복주머니에 허리에 걸치는 색을 차면 금상첨화다. 이와함께 손수건, 양말, 지갑, '부처님이 좋아'라고 써여진 어린이부채, 책가방, 도시락통, 물통, 목탁열쇠고리 등도 있다. 부처님께서 어린이 불자에게 주는 주옥같은 말씀이 새겨져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의욕을 갖게하는 학습용품으로 책받침과 학습노트, 메모노트, 일기장, 연꽃, 부처님, 법구경연필류, 코끼리, 연꽃이피어있어요 불련, 자, 지우개, 메모판, 샤프펜슬 등이 어린이들을 정답게 손질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놀이

성불도 놀이·춧불제·미니올림픽 친구간 우애심고 재미도 만점

어린이들이 맘껏 뛰고 스님, 친구와 한데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불교놀이문화의 활용일 것이다.

불교계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놀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개발돼 어린이회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불교놀이문화로는 부처님의 생애와 칠불안, 일곱왕자들의 성불을 소재로 한 성불놀이, 부처님이 되는 수행과정을 교육하는 불기만의 놀이인 성불도놀이, 보물찾기, 바리

공주이야기 아동극, 목탁이나 연꽃 등 불교의 사물을 친숙하게 익힐 수 있는 모래시계,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게임인 석탑쌓기-그림 퍼즐-지구는 초만원(매트위에 올라가게 해 올라선 사람 수를 기록하는 게임)-퀴즈올림픽 등으로 짜여진 미니올림픽, 춧불발원제, 불꽃놀이 등이 있다. 이는 캠프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과 범우들끼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어 범우들간의 유대강화와 신심증강, 소속감

도필선 기자

오디오 비디오

영상물 '우리들' '찬불가' 테잎 인기 멀티미디어 시대 새싹포교 한 몫

세상은 바야흐로 멀티미디어 시대로 치달고 있다. 교계에도 머지않아 재택법회, 재택포교라는 말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계 또한 80년대초부터 서서히 오디오 비디오 매체를 통한 포교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근래들어 법안정사 어린이회보등 각 사찰에서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비디오 상영과 찬불가테잎을 이용

한 레크리에이션 법회를 진행하는 등 불자들의 불교비디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고행, 성도, 교화,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방송이 제작한 불자어린이 포교영화 <우리들의 부처님(상, 하)>과 연우기회의 <석가모니 그 인간과 생애>가 출시

이은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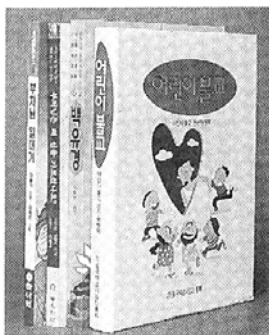


새싹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블서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는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방법도 모색돼야 하겠지만 부처님과 고승의 전기, 불교통화 등 어린이용 불서를 이용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지난해까지 나온 어린이 불서는 모두 130여종. 책의 종수는 적지만 만화 동화 전기 교리서 등으로 다양하다. 어린이용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쉽게 흥미



고승전기·만화·동화등 130여종 그림많고 내용 쉬워야 교육효과

를 가질 수 있는 만화 동화 형식의 책이 오히려 교육효과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산뜻한 그림과 조잡하지 않은 스토리의 구성이 필요하다. 만화와 동화를 통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린이에게는 알기 쉬운 교리서가 좋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 교리를 익히고 <백유경> 등의 재미있는 경전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김재경 기자

컴퓨터

만화 CD를 통해 제공되는 부처님의 전생과 불교동화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구 전산원 협업원(원장 지열)에서 제작해 보급하게 되는 CD <어둠에서 밝음으로>는 음성을 포함하는 만화로 부처님 전생과 불교동화를 제공한다. 또한 역사적인 불교역화를 예니

이불교편찬위원회의 <어린이불교> (동국역경사업진흥회) 문답형식의 교리서인 우학스님의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종은인연) (가), <비바람을 풍화형식으로 설명한 이슬기씨의 <부처님의 이야기> 시리즈(하나님) 등이 좋은 책으로 손꼽힌다.

'동련연꽃' 통신 '돈황...' 게임 유익 첨단영상 통해 불법 생생히 전달

메이션 처리해 뒷배경으로 사용하면서 법구경과 아함경의 경전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어 어린이 신행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폭력과 자극적인 환경이 되기 쉬운 컴퓨터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정서를 불러 일으켜 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LG소프트웨어가 제작한 <타라미칸-돈황전기(敦煌傳記)>. <대 컴퓨터 게임 돈황서적을 소재로 한 컴퓨터 게임으로 동굴을 탐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다. 모든 게임의 진행방향은 연꽃으로 표시되며 게임 중간중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나타나는 등

한 계획이다. '동련 연꽃' 불교동화회는 어린이 지도자들의 계시관인 '동련' 방과 어린이들의 계시관인 '연꽃' 방을 따로 두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연꽃' 방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활기찬 교리 경전공부 신행 상담 등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불교계 내에서도 어린이 신행활동에 PC통신과 CD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등을 통한 첨단매체가 적극 활용 될 전망이다.

남수미 기자

2천만에 깨달음을. 부처님의 법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다. 철보로 세상을 장식하는 것보다 한자락 법보시가 참 공덕이 됩니다. 현대 불교 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 표 02-737-8881, 광 고 02-737-0692, 팩 스 02-737-0697,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 전화 051-634-5114, 팩 스 051-634-5188. 광주: 전화 062-375-9986, 팩 스 062-371-7544. 대구: 전화 053-427-8008, 팩 스 053-425-8356. 목포: 전화 0631-281-2534. 공주: 전화 0416-55-0020. 사천: 전화 0593-32-5160. 청주: 전화 0431-53-4330. 여주: 전화 0337-84-0797. 속초: 전화 0392-31-0543. 강릉: 전화 0391-647-931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태징,요령,범고) 다루는 법, 도량서, 쇠소,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범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교육기간: 3개월 (각 과정). 원서접수: 1996년 5월 1일 ~ 5월 27일. 개강일시: 1996년 5월 27일 오후5시 정각. 대학통신과정: 법사과정, 삼장법사과정.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진의식을 불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전화·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담관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3층. 전화: 741-0495 ~ 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 난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향을 편히 모셔주면 자신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계의 영약이 되는 비법음 오령 테스트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령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령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음으로 테스트 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환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진립병. 서울상담: 장 소: 안국신원 (승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상담일자: 매주 금,토 (2일간). 상담접수: (02) 3401-3259. 부산상담: 장 소: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건너편 국민은행뒤). 부산 상담일자: 월-수 4일간. 상담접수: (051) 465-5100, 467-5200.